

1. 순종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애굽의 감독관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말고 이전의 숫자만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학대를 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느니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모세를 보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신앙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순종에는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 앞에 생긴 이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물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장애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할 때 장애물이 생기곤 하는데, 그 장애물은 대부분이 사단이 주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데 낙심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단은 모세를 낙망케 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세를 가장 낙망케 할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가장 낙망케 할 사람은 다음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사단은 방해하기 위해 교활한 계락을 짜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내가 믿고 있고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낙심케 하는 사건 앞에서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말은 자신을 향한 저주의 소리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제든지 맞아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상처주고 낙심케 하는 사람과 상황 앞에 나 자신을 고정시켜 세워놓은 우를 범하곤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말과 그 상황, 그 사람 앞에서 열린 내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존재를 이동시키면 하나님 역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단이 사람의 말을 통해 나를 낙심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과정을 도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단이 사람을 통해 나를 낙망케 하고 절망케 함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낙망하고 절망하면 사단의 계락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식은 사단의 계락으로 인해 낙망하고 절망케 되는 상황앞에 직면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1. **예배 안내** - 새벽기도회(월-금): 새벽 6:00 수요일전예배: 수요일 오전 10:30
수요일저녁예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 2. **코로나 관련 예배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10월 3일(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예배 가능 인원은 본당 좌석의 10%까지입니다.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진행하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예배를 들릴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4단계 기간 동안에는 금요일기도회 쉽니다.
- 3. **비전헌금** - 다음주는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드립니다.
- 4. **출애굽기 성경필사** - 출애굽기 성경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5. **3/4분기 재정보고** - 방역지침 4단계가 끝나는 10월 10일(주일)에 하겠습니다.
- 6. **9/10월 매일성경 판매** - 가격: 4천원
- 7. **교회학교 예배** -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 8. **청소** - 이번주 청소는 소망1순(이희수)입니다.

** 중보기도(환우) **

* 이종욱 장로 - 온전히 회복되어 의식이 돌아오고 언어기능이 돌아오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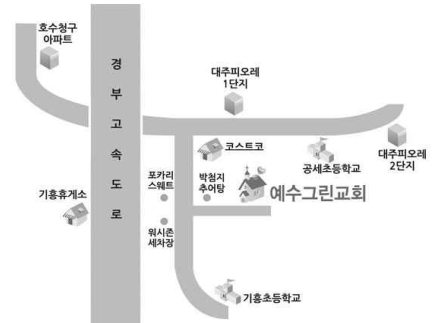
선교지 소식 **조용일 선교사(케냐)**- 케냐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현지인들과 조용일 선교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도록, 구제사역으로 돕고 있는 마을들을 꾸준히 돕고 그들의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 예수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그린의 사명

예수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양육 프로그램 안내

1. 새가족과정(green family)
2. 일대일 동반자과정
3. 일대일 양육자과정
4. 성서지리와 역사
5. 행복한 부부학교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3부, 젊은이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유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1층 새싹홀
꿈땅예배	주일 오전 11:00	3층 비전홀
파워웨이브	주일 오전 9:00	3층 비전홀
새벽기도회(월~금)	매일 새벽 6:00	본당
수요 오전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 7: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본당

섬기는 분들

- 목사** 나계수
전도사 류미순
Pianist 김효성, 박소영
협력선교사 송중훈(광동성), 장일규(필리핀), 김요한(홍콩), 조용일(케냐), 오태기(싱가폴)

나계수 목사는 명지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습니다.
 은누리교회와 홍콩제일교회를 거쳐 수원 은누리비전교회에서 사역하였고 2005년에 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그린교회는 2010년 7월 3일 창립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예배공동체, 삶이 변하는 제자양육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공동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개척 공동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섬김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비전에 인생을 드림으로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것입니다.

분을 하는 교회



-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
- 제자양육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선교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교회개척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공동체

2021년 9월 26일 / 제 12권 39호

새벽기도회
 새벽 6:00
 월~금(매일성경)
 출애굽기 강해
 설교 : 나계수 목사

수요 오전예배
 오전 10:30
 당분간 쉽니다.

수요 저녁예배
 저녁 7:30
 당분간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8:00
 방역지침 4단계에 따라 쉽니다.

순예배
 각 순별로 모입니다

예배 인도 : 나계수 목사

주일예배 1부(9시)
 2부(11시)

선포	찬양하여라(1절, 3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사도신경	다함께
신앙고백	경배와 찬양	다함께
경배와 찬양	통성기도	다함께
통성기도	기도	나계수 목사 (1,2부)

광고 인도자
 좋은신 하나님

설교 1부/2부 **출6:1~13** 나계수 목사
 "나는 여호와라"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축도 인도자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합니다.

- * 10월 3일 대표기도 : 나계수 목사(1부/2부)
- * 10월 10일 대표기도 : 양정훈 집사(1부), 민성식 집사(2부)
- * 10월 17일 대표기도 : 최병수 장로(1부/2부)
- * 10월 안내위원 : 그린케어팀
- * 헌금위원 : 민옥화/김미연